



☞ 홈 > 뉴스 > 경제/산업

## KB·롯데·NH농협카드, 주민번호 암호화 안해

개인정보보호법·금감원 가이드라인 깬그리 무시

2014년 01월 23일 (목) 11:57:32

조은국 기자 ✉ ceg@weeklytoday.com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촉발시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주민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아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번호가 암호화돼 있으면 유출되더라도 도용할 수 없지만 이들 카드사들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태를 확대시킨 셈이고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는 카드사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3항에는 ‘고유식별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해 8월 금감원이 각 금융사에 내려 보낸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도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들 카드 3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사항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IT전문가들은 이들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TF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카드 3사가 모두 주민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농협은 보안사고 단골”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선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실장은 “이들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놓고 관리에는 허술하게 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가 떠안게 됐다”비난했다.

이 실장은 또 “금융은 보안이 생명인데 보안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 사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예견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IT전문가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려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금융사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암호화를 안한 카드사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번호를 암호화를 해서 저장했는데 암호가 풀려서 노출됐다”면서 “어떻게 암호가 풀렸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지만 기술적 제한요소 때문에 암호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측답을 피했다.

© 위클리오늘(<http://www.weekly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